

시즌3-8호 | 잠언 3~16장

PEACE CHURCH

HAPPY MEAL Kit

해피밀은 평안교회 성도님들의 복있는 일상을 위한 매일 <경건밀키트> 입니다.

해피밀 시즌 3-8호를 발간하며, 주님의 손을 붙잡고 회복의 여정을 떠나봅니다.

사랑하는 수원평안교회 성도 여러분,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가족들과의 만남을 기다리시는 성도님들의 기대와 설렘이 전해져 옵니다. 이번 설 연휴에 모든 성도님의 가정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매주 주일 예배를 통해 <회복의 여정>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가정에서의 관계, 우리가 마주한 모든 어려움 속에서 깨어진 것들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기에, 이번 설 연휴를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신실하신 회복의 약속 가운데, 해피밀을 통해 나눌 말씀도 기대가 됩니다. 지난 7호에서 시편 묵상을 마무리했습니다. 시편은 우리에게 기쁨 때나 힘들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의미 있는지를 일깨워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한층 더 견고해질 수 있었습니다.

지난주부터 시작된 잠언은 "지식과 지혜의 차이"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성도님들이 더욱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함께 나눌 핵심 주제는 바로 "지혜로운 삶의 실천"입니다.



그렇다면 잠언이 가르치는 지혜로운 삶을 실천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단순히 말씀 묵상만으로 충분할까요?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회복의 여정을 걸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잠언을 통해 참된 지혜를 얻고자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잠언을 묵상하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지혜로운 삶의 모습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구하며 그 발자취를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2025년 1월 어느날
수원평안교회 담임목사 정재광

A handwritten signature in black ink, which appears to read "Paul Jung".

13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14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15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16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17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18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 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19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20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김동완 목사 **행복한 인생을 사는 법**

로또 1등에 당첨된다면 행복할까요? 아마도 많은 사람이 "예"라고 답할 것입니다. 제 생각에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은 거의 다 해결한 셈이니 무척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행복은 영원할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돈이 많다고 해서 영원한 행복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2003년 로또 1등에 당첨되어 무려 242억 원이라는 당첨금을 받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고급 아파트도 구매하고 투자도 하며 행복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내 금융위기, 사기 등의 문제로 인해 가진 돈과 재산을 다 잃고 사기꾼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많은 돈이 찰나의 행복은 줄 수 있겠지만 영원한 기쁨을 줄 수는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은과 금이 전부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지혜와 명철(지식을 의미합니다.)을 얻는 것이 더욱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혜를 얻는 것은 왜 가장 행복한 일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혜야말로 진정한 장수와 부귀함을 가져다주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왕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께 "듣는 마음(지혜)"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기뻐하셨습니다. 나아가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던 부귀와 장수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처럼 지혜는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혜를 구하는 행위 자체만으로 땅의 보화들을 다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의 행복이 여전히 물질에 달려 있다고 여기는 어리석은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이러한 생각들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잘못된 동기와 연결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위해 반드시 지혜와 명철의 근원이신 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은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그분은 많은 돈을 갖고 살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공생애를 채우던 것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은 순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인생의 기쁨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돈을 모으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안에서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워 보십시오.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행복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Q.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귀한 분임을 믿으시나요?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내게 필요한 행동은 무엇인가요?

21 내 아들이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네 눈 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22 그리하면 그것이 네 영혼의 생명이 되며 네 목에 장식이 되리니 23 네가 네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네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24 네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네가 누운즉 네 잠이 달리리라 25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26 대저 여호와와 네가 의지할 이시니라 네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27 네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28 네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끄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29 네 이웃이 네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30 사람이 네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31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로 따르지 말라 32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33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와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34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35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김동완 목사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어제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사는 방법에 대해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 삶을 유지하는 비결에 대해 소개한다고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비결의 정체는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때 근신이란 드러내지 않은 은밀한 계획 등을 의미합니다. 지혜와 근신은 헛된 것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용기를 주기도 하고, 어리석은 실수로 넘어지지 않도록 돕기도 합니다. 평안한 삶을 살게 합니다. 따라서 행복한 인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혜와 근신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삶을 가리키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웃에게 선을 베풀기를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일상에서 마주치는 사람 중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도와주고, 평안함에 있는 이들의 평온을 깨지 말라는 메시지입니다. 만약에 이를 어긴다면 그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웃에게 선을 끼치는 삶이 어째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 행복한 인생과 직결되는 걸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그분의 눈이 무엇을 바라보는지, 그분의 귀가 무엇을 듣는지에 대해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지은 모든 세상을 향해 사랑을 품고 계십니다. 우리의 이웃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컨대 그분은 죄로 물든 니느웨를 바라보시면서도 사랑을 잃지 않으셨습니다(요나 4:11). 실제로 그분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자신의 생명조차 내어주는 일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마음은 온 세상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분의 은혜로 이미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 되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비단 물질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마음, 시간, 생명까지 포함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한 인생을 유지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주님의 소유를 드리십시오. 베풀기를 아끼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비어있는 모든 것을 영원한 기쁨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화자는 네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다면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나요?

Q. 내가 가장 나누기 어려운 것은 무엇인가요(돈, 시간, 에너지 등)? 가장 나누기 어려운 주변 사람/단체는 누구인가요?

그들에게 나눌 수 있는 작은 실천을 결단해봅시다.

1 아들들아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2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3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4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네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5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네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6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7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8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9 그가 아름다운 관을 네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김동완 목사 **가장 좋은 것을 물려주십시오**

곧 있으면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우리 아이들은 새로운 학교, 새로운 반에서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새로운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출발을 앞둔 여러분의 아이들에게 가장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요? 혹은 동일한 환경에 있는 여러분 자신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조언이지 않을까요?

본문 속 화자는 자신이 아버지께 받았던 훈계들을 이제는 자기 아들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지혜야말로 가장 좋은 것이니, 절대 버리지 말고 오히려 얻으라는 것입니다. 지혜의 정체는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혹시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계신다면 이 점을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아버지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아들은 버림받고 죽음(신명기 21:18-21)을 당했습니다. 즉 아버지는 반드시 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의무가 있었고, 아들은 순종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역시 말씀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며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순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야 합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전하면 좋을까요? 화자는 자신이 유약한 외아들이었다고 말합니다. 이는 당시 사회에서 3~4살 정도 되는 아이를 가리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자녀를 두신 부모라면 아이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오. 반대로 자녀라면 받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애쓰십시오.

우리에게 이러한 명령을 하신 주님도 그렇게 살아가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성부께서는 끊임없이 성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자는 그 모든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물론 그 길은 우리의 눈으로 볼 때에 무척 위험한 길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지혜는 반드시 우리를 보호합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사랑하는 나 자신에게 지혜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이를 전하고 순종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수요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말씀을 읽기 전, 자녀에게 가장 물려주고 싶은 유산이 있다면 무엇이었나요?

Q. 자녀들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일에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이를 두고 기도하며 조금씩 해결해봅시다!

10 내 아들이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네 생명의 해가 길리라 11 내가 지혜로운 길을 네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12 다닐 때에 네 걸음이 곧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13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네 생명이니라 14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15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16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17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라 18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19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김동완 목사 **영적인 지구력을 길러 내야 합니다**

지구력은 일상생활에 가장 기본이 되는 체력요소입니다. 지구력이 약할수록 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반대로 지구력이 강한 사람은 쉽게 지치지 않습니다. 거뜨하게 해낼 힘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도 지구력이 필요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죄의 유혹과 핍박, 수많은 문제 앞에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강력한 영적 지구력이 요구됩니다.

화자 역시 이를 강조합니다. 13절의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는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영적인 지구력을 키우기 위해 평소 훈련을 힘쓰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죄의 유혹 앞에 쉽게 넘어지지 않을 기초체력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화자의 권면에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는 힘들고 어려워도 매일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영적인 지구력을 길러 내야 합니다. 만약에 화자의 권면을 잊고 영적 훈련에 힘쓰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양심은 점점 무뎌지고, 죄를 짓는 능력은 점점 거대해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린아이들은 거짓말 한 번조차 무거운 죄로 여깁니다. 그러나 노련한 사기꾼들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그들의 차이는 죄에 대한 능숙함입니다.

이러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의 유혹 앞에 담대히 맞설 힘이 필요합니다. 물론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빛이신 주님이 죄의 어둠에 있던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대신 지셨습니다. 그렇게 가장 큰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가장 큰 어둠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우리처럼 패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완전히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우리를 당신의 편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의인으로 여겨주셨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길은 죄의 "악인의 길"처럼 어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인의 길"처럼 돋는 햇살처럼 한낮의 광명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18-19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문제가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길도 변하지 않습니다. 죄가 유혹할 때 그가 있는 어둠 속으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빛이신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챔피언이자 최고의 코치이십니다. 주님과 함께 훈련하여 영적인 지구력을 키워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신앙의 훈련을 하지 않는다면 어떤 결과를 맞게 되나요?

Q. 영적인 지구력을 키우기 위해 구체적인 경건 훈련 계획을 세워봅시다.

20 내 아들이야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21 그것을 네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네 마음 속에 지키라 22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23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24 구부러진 말을 네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네 입술에서 멀리 하라 25 네 눈은 바로 보며 네 눈꺼풀은 네 앞을 곧게 살펴 26 네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네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27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김동완 목사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어제 우리는 훈련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적 지구력을 기르는 이유는 지켜야 할 요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은 사람의 사고와 행동을 결정하는 기관**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중요하게 작용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작용합니다. 쉽게 말해서 그분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느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느냐는 바로 마음의 상태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마음이 죄를 원할 때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려 보십시오. 주님께서도 마음의 상태의 중요성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마태복음 15:19)"**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우리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잠언 4:23)"**는 화자의 말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매일 반복되는 시기와 질투, 게으름과 나태함을 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매일 이러한 죄악이 자라나도록 양분을 제공하는 이 뻘뻘스러운 핑계들을 없앨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 당연히 어제의 결단처럼 구체적인 경건 훈련을 세우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선행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일입니다. 그 마음을 모르는 채 훈련한다면, 우리는 결국 지쳐 쓰러질지도 모릅니다.

본문 속 화자와 비교하여 봅시다. 그는 사랑하는 아들이 죄에 물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권면 속에는 무력함도 담겨 있습니다. 아들을 향한 사랑의 크기가 아무리 크더라도, 막상 아들이 잘못된 길에 빠졌을 때 그를 구원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근심 걱정 속에서 권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릅니다. 물론 우리를 향한 애끓는 마음은 화자보다 더욱 크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염려하는 마음만으로 우리를 바라보지는 않으십니다. 그분은 이미 우리를 지켜내는 일에 성공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힘 있고 담대하게 권면하십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령 넘어질지라도, 우리를 책망하거나 버리지 않고 끝없는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즉 예수님의 마음에는 그 어떤 불안함도 없습니다. 그저 사랑과 담대함, 긍휼, 자비함이 넘칠 뿐입니다.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 이토록 커다란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그분의 마음을 의지하여, 우리의 마음을 지켜냅시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마음을 지키는 자가 얻는 유익은 무엇인가요?

Q. 영적인 눈을 어떻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것으로부터 내 마음과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온 가족 <잠언 3장> 묵상하기

1. 잠언 3:13-20을 필사해봅시다. (청소년, 청년용)

13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14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15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16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17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18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 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19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20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2. 잠언 3:13-20의 의미를 나눠봅시다. (가정의 대표자)

대표자가 '월요일 해피인사이드'를 읽거나 혹은 교회 유튜브를 통해 '토요일 미니홈피 영상'을 함께 시청합니다.

3. 핸드폰 배경화면을 변경하고 한 주 동안 묵상해봅시다. (온가족)



잠언 3장 배경화면 다운로드 (QR 코드 스캔)



다운 받아 사용하세요!

1 내 아들이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네 귀를 기울여서 2 근신을 지키며 네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3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4 나중은 쑥 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 같이 날카로우며 5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가나니 6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7 그런즉 아들들이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8 네 길을 그에게서 멀리 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전보아스 목사 **대면하지 말고 도망치세요**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음녀’(3절)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버리도록 유혹하는 세상의 모든 것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솔로몬은 이 음녀의 입술이 꿀을 떨어뜨린다고 표현합니다. 즉 음녀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으면 너무 좋고, 듣는 자로 하여금 황홀하게 만듭니다. 기름보다 미끄러운 그녀의 말은 그만큼 설득력 있고, 아주 그럴듯하게 유혹하며 다가옵니다.

이렇듯 세상의 유혹은 매우 달콤하며 사람의 마음을 빼앗을 만큼 현혹적입니다. 그러나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달콤한 것 같지만 실제로 그것을 취하는 자들에게 독과 같이 인생을 쓰게 만들고 결국은 파괴시킵니다(4절). 그 유혹에 넘어가는 모든 자는 결국 죽음으로 나아가는 것과 똑같습니다(5절). 그러므로 우리는 음녀의 말과 입술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음녀의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1절, 7절). 우리는 무엇을 듣고, 무엇을 가까이하는가에 따라서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우리는 음녀의 입술을(세상의 소리) 가까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음녀의 유혹을 이겨내기 위하여 취해야 할 행동은 바로 도망치는 것입니다(8절). 유혹을 대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혹으로부터 도망쳐야 합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때 그는 도망쳤습니다. 우리가 유혹을 대면하지 않고 도망쳐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마 26:41) 우리의 육신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유혹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러다가 즐기지 마십시오. 유혹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십시오. 그러함으로 유혹을 피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유혹이 다가왔을 때 도망치지 않고 대면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어떠한 결과로 이어졌나요?

Q. 스스로의 믿음을 과대평가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때로는 유혹이 다가왔을 때 대면하지 않고 도망치는 것이 지혜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6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7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8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9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10 좀더 자자, 좀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더 누워 있자 하면 11 네 빈궁이 강도 같이 오며 네 곤핍이 군사 같이 이르리라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전보아스 목사 **개미로부터 얻는 교훈**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세상의 지혜와 특별히 다를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미를 통해 부지런함을 배우라는 것은, 우리가 어렸을 때 자주 읽었던 동화책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에서 가르치는 부지런해야 한다는 교훈과 다를 것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복음을 중심으로 본문을 묵상해보면 성경에서만 주는 특별한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개미의 모습을 통해 두령, 감독자, 통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름과 추수 때에 부지런히 양식을 준비하는 모습을 닮으라고 권면합니다(7절). 즉, 자발적이며 적극적인 모습으로 앞으로 닥칠 일을 준비하라고 권면합니다. 개미는 육의 양식을 준비하지만 우리는 영의 양식을 늘 누리며 영적으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환난과 고통이 다가왔을 때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준비된 모습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게으른 자들의 삶의 모습을 무엇이든 조금씩 미루는 자들로 표현합니다(10절). 게으른 자들은 지혜롭고 성실한 자들과는 반대로 사소한 것의 중요성을 모르고, 하찮은 습관의 위험성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은 사소한 것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결정됩니다. 매일 하고 있는 작은 습관과 사소한 행동들이 우리 삶을 만듭니다. 비록 개미 한 마리가 한꺼번에 운반하는 양식의 양은 적을지라도, 그것이 쌓이면 결국 고난의 때를 이겨내는 힘이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사소하게 여기는 작은 습관과 게으름으로 인하여 말씀을 멀리하는 습관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사소한 행동이 무엇인지 말씀 앞에서 깊이 돌아보시며 우리의 삶을 고쳐나가는 시간을 가지시길 소망합니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처음에는 사소하다고 방심하여 시작했다가 어느새 끊지 못하여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삶의 모습들이 있으십니까?

Q. 모든 중독은 사소한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더 늦기 전에 지금 당장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모든 죄악을 말씀의 능력을 통해 끊어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20 내 아들이야 네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21 그것을 항상 네 마음에 새기며 네 목에 매라 22 그것이 네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네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네가 깬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23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24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전보아스 목사 **빛을 따라 가십시오**

오늘 본문에선 이 세상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도록 훈계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아버지의 명령과 어머니의 법을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합니다(1-2절). 즉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라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마음 가운데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기 때문입니다(눅 6:45).

우리의 생각은 말이 되고, 말은 행동이 되며, 행동은 습관으로 이어지고, 습관은 곧 인생이 됩니다. 이것은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은 중요합니다. 마음에 새기는 것이 곧 인생이 되기 때문에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지키는 것은 곧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잠 4:23). 이처럼 생명의 근원이 되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울 때 우리 삶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22절).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실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말씀이 등불이며 빛이기 때문입니다(23절). 즉,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길입니다. 이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인생은 그분 안에서 안전하며 확실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 마음 가운데 생명의 빛을 담아 어둠을 물리치는 복된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어둠은 빛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생명의 빛을 맞이했을 때, 어둠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방향은 끝나고 오늘 하루 내가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주님의 말씀 안에서 분명해질 것입니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겉으로는 나의 신앙이 멀쩡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마음을 지키지 못하여 은밀하게 죄악 가운데서 허우적 거리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Q. 겉으로 속일 수 있는 것은 잠시 잠깐일 뿐입니다. 우리 모두는 결국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마음 가운데 생명의 빛을 담아 어둠을 물리치는 복된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6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 보다가 7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8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쪽으로 가는데 9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해피인사이트+ Happyinsight+

전보아스 목사 **좁은 문, 좁은 길**

지금까지 우리가 묵상한 잠언은 계속해서 지혜와 음녀를 비교하며, 우리로 하여금 음녀로부터 도망치고 그것에 빠지지 말아야 함을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우리가 음녀라는 세상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은 창문 밖을 어떠한 목적을 갖고 주목하여 바라본 것이 아니라 우연히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굳이 주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음녀의 길로 향하는 사람들을 그는 너무나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길로 가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즉, 세상의 문화와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큰 문과 넓은 길로 향하는 사람은 참 많습니다(마 7:13).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깨어있지 않는다면 멸망의 길로 향하는 사람은 너무나도 많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깨어있어 근신하며 마음을 지킬 때 비로소 우리는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음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지혜가 없는 점점 어둠 속으로 빠질 수 밖에 없습니다(8-9절). 물론 처음부터 깊은 곳으로 곧바로 빠져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깊은 곳으로 빠져들 것이며, 끝내 헤어 나오지 못하는 단계까지도 이를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나는 지금 어디로 향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되돌아보길 바랍니다. 악은 가까이할수록 더욱 깊어집니다. 어느 정도만 타협하고 금방 악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애초에 유혹의 자리에서부터 도망치고 그곳으로 나아가지 않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떠한 세상의 가치보다도 소중히 여길 때 비로소 이러한 삶이 가능함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우리 모두는 '나는 좁은 길'로 가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정말입니까?

Q.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자들은 극히 드물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나의 믿음을 합리화 시키지 말고 정말 진실되게 내 신앙을 되돌아 봅시다. 주님 앞에서 부끄럼 없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1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2 그가 길 가의 높은 곳과 네거리에 서며 3 성문 곁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4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5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6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7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8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에 굵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 9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10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전보아스 목사 예수 사랑, 지혜 사랑

민음의 백성들을 유혹하는 음녀는 밤 깊은 시간 아무도 모르게 죄의 길로 속삭이지만, 지혜는 큰 소리를 높여 많은 사람을 향해 외치고 부르짖습니다(1-4절). 지혜는 큰소리로 외치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들으려고만 하면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지혜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지혜는 어리석은 자와 미련한 자를 지혜롭고 명철하게 만들어 마음을 밝게 만들어줍니다. 지혜를 통해 진리의 빛이 들어와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게 됩니다(5절).

지혜는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이 가장 선택합니다(6절). 지혜는 우리의 삶을 선하게 만들어주며 선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존귀한 것입니다. 지혜는 진리를 말하고 악을 미워하기 때문에 굵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습니다(8절). 그러므로 거짓이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지혜임을 깨닫습니다.

지혜는 고대 사회에 가장 가치 있는 대표적인 보물이었던 진주와도 비교할 수 없이 더 나은 것이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라고, 원하고, 기뻐하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합니다(11절). 그러므로 우리를 가장 유익하고 선하게 만들어주는 지혜를 찾고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지혜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며 찾고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17절).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악을 미워하게 만들고, 모든 악한 길에서 떠나도록 지켜주고 보호해 줍니다. 지혜는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도 아니며, 가질 수 없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이 땅에 지혜로 오신 우리 주 예수님을 사랑하고 찾을 때 주님의 사랑을 얻게 되고, 주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유익을 주시기 위해 예비하신 지혜를 사랑하고 구하여서, 지혜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얻고 누릴 수 있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Q.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곧 지혜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사랑하고 따르는 자는 지혜있는 자임을 기억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식구 다 같이 <잠언 5장> 색칠하기

가정예배 미니홈피

미취학(3~7세) 자녀와 함께 말씀으로 색칠하는 하루

잠언 5장 말씀을 기억하며 자녀들과 함께 색칠공부를 해보아요.

유혹을 만났을 때 그 자리로부터 얼른 도망쳐요!



1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 2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3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 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 4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 5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6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해피인사이트+ Happyinsight+

이동완 목사 지혜로운 여인

우리는 지금까지 잠언의 전반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전반부는 지혜로운 저자가 아들에게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지에 대한 물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지혜로운 여성을 만나,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지혜로운 여성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아들로 하여금 지혜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 그녀는 집을 짓고 있습니다. 특별히 일곱 기둥의 집을 짓는데 이것은 그 집이 7이라는 완전수에 걸맞을 정도로, 완벽하고 웅장한 집임을 뜻합니다. 2절에 보면 그녀는 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짐승을 잡아 고기를 준비하는데 이것은 매우 성대한 잔치를 뜻하며, 포도주를 혼합하는데 이것은 꿀과 향료를 섞어 포도주의 맛을 더해서 더욱 기쁨이 넘치는 잔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그녀는 자신의 여종을 성중 높은 곳에 보내서, 지혜로운 여성을 부르도록 초청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녀는 어리석은 자들을 부릅니다. 여기에서 어리석은 자는 미성숙한 자로서, 아직 미련한 여인이거나, 지혜로운 여인을 택하지 않는 자들을 뜻합니다.

지혜로운 여성은 모든 것을 준비하여,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미 하나님의 지혜는 완벽하게 준비되어 우리의 인생길에서 계속된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인생과도 가운데 참된 여호와 하나님의 지혜와 삶의 방도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성령님의 초청에 우리는 늘 반응하면 됩니다.

또한 우리는 미성숙할 때 결정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미련한 길이나 지혜로운 길을 택하지 않는 그 상태에서 지혜를 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자기의 사견에 따라 다 행한 뒤, 구하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회개 영역 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내가 그 길을 가기 전, 미리 구하는 것임을 기억하시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여성이 초청하듯, 이미 우리의 삶 가까이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펴십시오. 신앙서적을 잡으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며, 지혜의 길을 선택하길 소망합니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현재 지혜가 필요한 상황과 형편이 있으신가요?

Q.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지혜 얻길 구체적으로 다짐합니다.

13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14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15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16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17 도독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18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스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이동완 목사 **미련한 여인**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어제 보았던, 지혜로운 여인과 다른 미련한 여인의 유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 미련한 여인은 떠든다고 합니다. 14-15절을 보니 그녀는 떠들며 자신의 길을 바로 행하는 사람을 미혹하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미혹의 메시지는 17절에 나옵니다. 도독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지금 달다, 맛있다는 육신의 감각을 자극하는 것으로 미성숙한 자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인생에 이러한 미련한 여인의 소리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그들은 떠들며 우리의 생각을 시시 때때로 공격하고 미혹합니다. 특히 그 모든 유혹은 ‘자극적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도 자극적인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아이들이 하는 게임을 보면, 현란하고 휘황찬란한 그래픽으로 눈을 자극하고, 귀를 자극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인생에는 또 얼마나 많은 자극이 있습니까? 광고를 보십시오. 늘 ‘고객님 깨만 드리는 혜택!’이라는 문구가 널려있습니다. ‘혜택’이라는 효율, 합리적인 자극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또 무엇을 더 말할 수 있을까요? 핸드폰을 열어서 문자 메시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정말 자극적인 문자 메시지들이 많지 않습니까? 혜택, 이벤트 등등 세상의 모든 것들이 자극으로 뒤덮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미련한 여인이 준비한 것과 같이, 이러한 강한 자극의 끝은 스올입니다.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미련한 여인의 미혹에 넘어 그녀를 따랐던 자들은 스올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지혜로운 여자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었습니까? 그녀도 자극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고기와 달고 단 포도주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대한 잔치와 자극은 결코 스올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이 준비한 또 다른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쁨이 일곱 개인 성대한 집입니다. 집은 영속적인 공간입니다. 지속적인 공간입니다. 지혜로운 여인이 주는 기쁨과 거룩한 자극은 우리를 스올이 아닌, 영속적인 공간에서 지속적인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할 때, 얼마나 기쁠까요? 그 말씀을 깨우쳐갈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때로는 눈물이 나고, 때로는 너무나도 그 말씀이 사랑스러워 품에 안기도 합니다. 이 놀라운 기쁨은 결코 우리를 스올로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케 하고, 그 나라에 거하게 합니다. 그 나라에서 우리는 식어지지 않고 영속적인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현재 나를 가장 자극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Q. 하나님 말씀에 자극되길 소망하며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길 결단합니다.

7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8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9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10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11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12 나 지혜로 말미암아 네 날이 많아질 것이요 네 생명의 해가 네게 더하리라 12 네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네게 유익할 것이나 네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이동완 목사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오늘 본문은 지혜로운 여인과 미련한 여인을 비교하는 성경에 한가운데 놓인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는 우리에게 이렇게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지혜로운 길을 선택할 수 있느냐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지혜로운 여인의 권면을 듣지 않는 자들이 나옵니다. 7-8절에 보면 그들은 거만한 자입니다. 거만한 자는 지혜로운 여인이 책망하여도, 그 책망을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만한 자는 다른 이의 책망을 미워함으로 자신의 거만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거만함의 다른 말은 교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교만은 자기의 생각이 가득 찼고, 자기의 생각이 가장 높다고 여겨서, 다른 이의 권면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자기로 꽉 막힌 상태입니다.

교만은 지혜로운 자의 권면을 따르지 않습니다. 교만은 자기의 생각에 동의해 주는 정보만 찾아다니며, 자기의 생각을 확증해 주는 말들 속에서 자극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는 너무나도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이 옳다는 것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고군분투하며 살아갈까요? 지혜로운 자들의 말을 내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감정 소모를 하게 될까요? 8절에 나온 '미움'은 정말 감정적인 소비가 큰 마음가짐이지 않겠습니까? 또 자기의 생각이 다 맞다고 생각했으니, 자신이 택한 모든 결정에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 또한 얼마나 무겁고 힘겨운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교만을 벗어나기 위해서 10절 말씀과 같이 여호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분 앞에 설 때 우리는 그분의 완벽하심으로 인한 우리의 비참함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비참함을 깨닫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참한 자기 자신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호와를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와의 도를 그제야 수용케 됩니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나에게 있는 거만한 부분은 무엇인가요?

Q. 겸손은 억지 감정이 아닌 진실함 감정임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비참함을 적어보세요.

16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17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 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18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19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20 의인의 혀는 순은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21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22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이동원 목사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잠언 말씀을 읽을 때 주의할 점이 있다고 한다면, 문맥을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잠언은 하나의 격언을 모아둔 격언집으로써 어떤 이야기가 논리적으로 전개되는 서사적 책이 아님을 인지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잠언 10장 또한 그러한 책으로서, 정말 다양한 주제들과 메시지들이 한 뿔에 어우러진 격언집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돈과 의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돈은 늘 문제가 되어왔습니다. 신약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딤후 6:10)”가 될 수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늘 돈이 문제가 되어온 것보다 더 큰 도전이 오늘 우리의 삶에 놓여있습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를 살고 있으며, 돈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맘모니즘, 물질만능주의 기저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나온 ‘오징어게임’이라는 드라마는 그러한 비참한 현실을 잘 보여줍니다. 돈 앞에서 인간존중이 사라지고, 생명을 경시하며, 사랑, 의, 우정과 같은 고상한 가치들이 퇴색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돈이 항상 문제의 원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잠언 말씀 16절에 보면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잠 10:16)”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수고는 보상을 뜻합니다. 즉, 의인이 부지런히 살아가며, 정직하게 살며 벌어들인 소득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득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에 이르게 합니다. 기독교는 부자들을 폄하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를 추구하기 보다는 의를 추구하길 권면합니다. 의인은 자신의 부를 생명을 위해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 의를 사모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의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수고는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속주로 오셨음을 기억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성령의 감동을 따라 자신의 이야기로 받은 사람은 마땅히 돈이 아닌 의를 사랑하고자 합니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나는 돈을 더욱 사랑하고 있지 않나요?

Q. 현재 나의 문제와 고민 앞에서 돈을 빼고 의를 추구하며 생각해 보세요.

1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니라 2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3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4 재물은 진노하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5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굳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6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해피인사이트+ Happyinsight+

이동완 목사 **공평한 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절 말씀은 우리의 일상생활의 한 저변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속이는 저울과 공평한 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상인들이 행하는 행위, 즉 일상의 이야기를 뜻합니다. 우리의 삶도 일상의 행위 속에 얼마나 많은 저울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다양한 것에서 잣대질을 합니다. 무언가를 구매할 때, 또는 판매할 때 그 물건의 가치를 판단하고, 금액을 선정합니다. 인생의 길을 정할 때에도 나름대로의 계산과 잣대질을 통해서 그 길을 정합니다. 타인을 대할 때에도 우리는 자신의 잣대를 가지고 그 사람의 가치평가를 쉽게 합니다. 모두에게는 나름대로의 저울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저울추는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필수적으로, 부지불식간에 사용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공평한 추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리저리 치우치지 않은 추 말입니다. 우리에게서는 중립, 객관적인 시선과 태도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타인을 대할 때에도 우리는 공평한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또 나를 볼 때에도 객관적인 마음으로 자신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 있는 많은 문제들의 원인은 어쩌면 공평한 추가 없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이념, 성별, 지연, 학연, 혈연, 취미, 관심사와 같은 것은 속이는 저울을 만들기 일쑤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의 관점을 틀림으로 여기며 배척합니다.

우리에게는 공평한 추가 필요합니다.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입니다. 이를 위해 잠언기자는 ‘겸손한 마음(2절)’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자는 타인의 말을 귀담아 듣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듣습니다. 이러한 경향으로 자기 객관화에 이르며 공평한 추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나는 충분히 객관적인 사고를 하고 있나요?

Q.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집시다.

우리 식구 다 같이 <잠언 10장> 먹기 가정에배 미니홈피

1. 아동(11~13세) 자녀와 함께 말씀먹기

1) 우리 가족 성경 읽기 : 잠언 10장, 큰 소리로 읽어보아요.

온 가족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성경읽기를 진행해보세요. 오늘은 잠언 10장입니다.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읽기를 진행하셔도 되고, 목소리 좋은 사람이 대표해서 읽어도 좋아요!

2) BINGO! 빙고타임! 잠언 10장을 읽으며 기억에 남는 단어를 골라 3x3 빙고를 완성해보세요.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하나님 앞에서 죄책감을 느끼고, 용서하심을 받자.

1. 2월 13일 해피밀을 읽어주세요.

2. 나는 얼마나 돈에 좌지우지 되고 있나요?

3. 우리 가정에 있는 문제에서 '돈'을 빼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사고가 달라지나요?

4. 아이의 손을 꼭 잡고 기도하세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돈 보다 의를 사랑하는 우리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고민하고 생각할 때 돈을 빼고 생각하게 하옵소서. 돈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접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의인으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가진 재정을 통해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나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2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피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3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나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4 어린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목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5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6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나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7 악인은 엷드려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8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9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체하고도 음식이 찢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조아론 목사 **훈계를 기뻐해요!**

치과에 가는 것을 매우 두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갑자기 부과되는 치료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런 모든 상황들을 갑자기 맞닥뜨렸을 때 우리는 깜짝 놀라곤 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인정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과에 가는 것은 매우 두렵습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훈계를 통해 나의 상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그것을 인정하고 변화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유지하고 있던 모습들이 있는데 그것을 부정하고 새롭게 변해간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죄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로 인해 모든 인류는 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 죄인들을 바라보며 주님께서는 우리의 상태를 인지시켜주시고, 회개하고, 올바른 길로 가도록 훈계하십니다. 그렇게 하는 데에는 분명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미워하거나, 괴롭히기 위해서 훈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인이어서 하나님을 원수 같이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미워합니다. 이것이 죄인의 특성입니다.

사랑하는 평안의 성도님들 우리를 사랑하사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공의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훈계를 멸시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허락하신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훈계를 기뻐할 힘을 얻었습니다. 그분의 영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사 이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힘을 주십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시는 모든 평안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훈계를 받아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Q.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는 이제 훈계를 따라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부분들을 바꾸어 나갈 수 있을까요?

1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2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궤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3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4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5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6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7 스스로 부한 체하여도 아무 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체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8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헐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9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조아론 목사 **훈계를 들으세요!**

잠언 13장은 12장에 이어서 또다시 훈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아버지와의 관계 가운데 자녀로서 훈계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자녀로서 부모의 훈계를 기뻐하기보단 멀리할 때가 매우 많습니다. 부모님은 자녀들보다 많은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부모님은 자녀들을 사랑하고, 자녀들에게 좋은 것들을 주고자 합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부모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들을 좋은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부모님께서 가르쳐주시는 것들을 싫어하고 밀어냅니다.

죄인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머리털 하나하나 세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자녀들은 칼을 달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것들을 베풀어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들을 그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럼에도 죄인들은 끊임없이 불평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스스로 내던지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젠가 부모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아! 그때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었구나, 나도 자녀를 낳아보니 자녀에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구나, 다 사랑이었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언젠가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십자가의 사랑이 이해되게 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훈계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훈계에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훈계로 인하여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평안의 성도님들! 훈계 듣기를 기뻐하시길 소망합니다. 훈계를 베풀어주신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훈계는 우리의 영혼을 살립니다. 주님의 훈계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참 평안과 기쁨을 허락합니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부모님의 훈계가 듣기 싫어서 귀를 막은 적이 있으신가요?

Q. 후에 부모님의 훈계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회개한 적이 있으신가요?

... 29 노하기를 더디 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30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니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31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32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33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34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35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조아론 목사 권선징악

고려나 조선을 배경으로 하는 사극에 보면 참으로 악한 신하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왕을 속이고 자신의 이익만을 위합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을 바라보며 답답한 마음을 느낍니다. 그리고 권선징악이 그곳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그곳에서 권선징악을 찾아보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오히려 악한 자들은 더욱 득세하고, 정직하고 청렴한 자들은 좌천, 유배 혹은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이러한 스토리는 옛이야기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이야기가 곳곳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당당하게 다른 이들을 속입니다. 다른 이들의 피를 흘리는데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미 죄와 탐욕에 모든 마음이 빼앗겨 양심은 마비되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안타깝게도 죄로 인하여 저주받았고, 비참함 가운데 놓였습니다. 로마서 3장 13-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3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14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15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니라 16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17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18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죄인은 속임과 피흘림을 기뻐하고 누구보다 빠릅니다. 그들은 온 세상을 공의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고자 했습니다.

로마서 3장 4절을 통해 우리는 결국 주님의 말씀 앞에 설 것이며, 판사이신 하나님께 공의로운 판결을 받게 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지금 당장에 심판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죄에 우리의 영혼을 팔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참되고 바른 믿음과 양심을 소유하시길 소망합니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우리의 삶에 악인들이 득세하는 상황을 목격한 적이 있나요?

Q. 그러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반응했나요?

... 13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14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15 고난 받는 자는 그 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16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



해피인사이트+ Happyinsight+

조아론 목사 안에서 새는 바가지

한 때 선데이 크리스천이라는 말이 유행했습니다. 주일 혹은 예배 때는 크리스천의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오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 버리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모든 것을 지켜 행하는 멋진 모습을 보였지만, 집에만 오면 그런 모습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다른 사람들은 속아 넘어갈 수 있지만 함께 사는 가족들은 그 모습으로 인하여 믿음이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모든 일상이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위급한 순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정말 중요하고 위급한 순간에도 동일하게 믿음에 따라 올바른 선택들을 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그때에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때에는 내가 익숙한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 말씀보다 더 가까이한 것들을 움켜질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말입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바깥에서는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은 참으로 미련한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과 그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지 않다면 우리의 일상은 곧 무너질 것입니다. 지금은 괜찮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곧 흔들릴 것입니다. 조금씩 생기던 균열은 점차 커져 건잡을 수 없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는 위와 같은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우리의 마음이 즐거우면 그의 얼굴은 곧 빛이 나게 될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근심은 곧 우리의 모든 삶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상황 가운데 근심이 누룩같이 퍼지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할 때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는 모든 죄와 그에 따른 비참한 세상의 흐름으로부터 자유를 경험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그리고 행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근심이 있으신가요?

Q. 두 다리 쪽 뻗고 자본 적이 있으신가요?

1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2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
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3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4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
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5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
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6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7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8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9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10 하
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11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
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조아론 목사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삶**

수많은 계획과 부푼 기대를 가지고 시작한 2025년이 벌써 많이 흘렀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계획했던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
었나요?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게 흘러가는 상황을 바라보며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나요? 바라기는 수원평안교회 모든 성도
님들의 계획이 주님 안에서 선하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우리의 계획이 실패하고 틀어지는 이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
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마음의 계획은 인간이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
렇기 때문에 우리의 계획은 매번 실패하곤 합니다. 우리의 계획은 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지혜롭지 않은 아이처럼 하나님
께 위험한 것들을 달라고 떼를 씁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유익이 되는 것들을 계획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를 사랑하사 우리의 계획과는 반대 방향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우리의 계획을 수정할 수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답고, 완벽한 일들을 신
뢰하기 때문에 연약한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 드릴 수 있는 자입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나의 완고함을 자랑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높은 자가 되어 나의 계획이 옳다, 나
의 계획이 가장 선하다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결국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지혜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뜻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분
의 뜻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일치했습니다. 설령 그것이 죽음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사랑하는 평안의 성도님들! 나의 생각과
뜻을 주님께 맞추어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2025년 계획했던 것들이 수포로 돌아가서 마음이 상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Q. 하나님의 일하심을 마주하며 기쁨을 누렸던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 식구 다 같이 <잠언 13장> 먹기

가정에배 미니홈피

- 1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 2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궤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 3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 4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 5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 6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 7 스스로 부한 체하여도 아무 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체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 8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 9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 10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 11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 12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 나무니라
- 13 말쑥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 14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 15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 16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 17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 18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 19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 20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 21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 22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 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 23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 24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 25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주리느니라

COME

평안교회
소개영상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평안교회 오세요



Christ alone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입니다.

Outward focus

나보다 남을 섬기며
선교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Mature together

성도들이 말씀의 교제를 통해 함
께 성숙해가는 교회입니다.

Extended family

세대간의 화합과 신앙의 대잇기를
열망하는 대가족 교회입니다.





Tel 0507-1365-8119

E-mail peacechurch@gmail.com

Adress 경기도 수원시 호매실로218번길 110 수원평안교회 **Homepage** www.peacechurch.kr